

# 책은 꼭 읽어야 하는가

— 부모들께 부침 —

## 조혜정

연세대 교수 · 문화인류학

책은 꼭 읽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나에게서는 오빠가 하나 있는데, 그는 책을 무지하게 읽기 싫어 한다. 그리고 어쩌다가 책을 읽게 되면 서너 달에 걸쳐서 한 권을 읽는다. 어느 날엔가 “이런 식으로 책을 읽어서는 안된다”고 쓴 독서법에 관한 글을 읽던 그는 너무나 신통하다는 듯이 “내가 책읽는 법을 그대로 알아냈구나. ‘속으로 소리를 내면서 읽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나는 꼭 소리를 내면서 읽거든” 등등으로 자기의 약습을 자랑스레 말한 적이 있다. 그는 대신 마주 대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 책을 읽으면서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 살다보니, 나는 언제부터인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그의 눈은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내가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또다른 사건은 올해 초반에 있던 청문회의 과문을 보면서이다. 청문회로 우리 국민의 정치사회적 의식은 비약적 발전을 했다. 그것은 굳이 청문회에서 따져진 내용 때문이 아니다. 그 ‘비약’은 청문회가 진행되는 상황을 직접 봄으로써 그리고 청문회 주인공들이 언급한 그동안 금기시되었던 단어들 몇개를 들음으로써 가능해진 것이었다. 구태여 책을 권할 필요가 있을까? 그 막강한 시청각매체가 전하고자 한 것의 몇 배의 정보를 스스로 뽑아낼 수 있는 눈치있는 국민들에게? 그리고 삼삼오오 모인 장소라면 어디서건 우리의 여론정치마당은 펼쳐지지 않는가?

세번째 이유는 역사적인데서 찾아볼 수 있다. 도대체 문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고대국가의 통치집단이 모든 땅은 임금의 것이라고 선포하고는 그것을 정당화하고 세금을 긁어내는데 주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당시 문자를 독점한 집단의 횡포를 여기서 얘기할 생각은 없다. 단지 문자를 가진 사회가 그렇지 않은 사회보다 진보된 사회라는 신화를 깰 필요는 있다. 문자는 보다 복잡해진 조직사회의 질서유지에 불가피한 산물이었지, 보다 인간적이고 이상적인 삶을 약속해주는 발명품은 아니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정말 책을 읽지 않아도 될 건가? 진실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 청문회의 경우를 다시 보자. 숨겨진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 口傳으로만 가능할 것인가? 문자의 도움없이 어떻게 광주의 진상을 밝히며 5공 비리를 들추어낼 수 있었을 것인가? 그간 공권력에 의해 장악되어온 대중매체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선한 역사’에 대한 신뢰를 이어온 것은 역시 문자의 힘이 아니었을까?

한마디로 거대한 현대사회는 문자의 도움없이 공동체를 제대로 차려가기 어려운 사회이다. TV나 육성컴퓨터를 통해 문자에 대한 의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날이 조만간 올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역사로부터 배워서 큰 시행착오 없이 생존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에 어느 정도의 문자문화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말문화를 잃은 사회는 인간 사이의 체온의 단절로 위기를 맞으며, 문자문화를 잃은 사회는 이성을 잃는 위기를 맞게 된다. 인간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기를 자신이 없으면 책이라도 좋아하는 사람을 기르자. 사실상 지금 도시의 핵가족적 상황에서 남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아이가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니 책이라도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남의 마음도, 책도 읽을 줄 모르는 아이를 기르지는 말자는 말이다.

사실상 현재의 문제의 근원은 책을 읽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진 책읽지 않는 부모에게 있다. 아이에게 ‘책 읽으라’는 잔소리만큼 아이로 하여금 책을 멀리하게 하는 효과적 방법도 드물 것이다. 우선 아이를 ‘아주 싱싱하게’ 내버려두자. 그러면 그는 스스로 책을 찾을 것이다. 그의 부모가 책을 읽는 어른이라면...

초점	2	저작권분쟁, 그후 어찌 되었나
출판 하이라이트	4	출판물 홍보지, 점차 다양해진다
	5	출판계에 뿌리내리는 '전문출판'
문화비평	6	密林의 문화/黃鉉産
서평	8	R.콜린스 「學歴主義社會」—韓駿相 李相信 「19世紀 獨逸歴史認識論」—李敏鎬 9 朴有鳳의 「현대출판학원론」—彭元順 全炳澤 「朝鮮後期奴婢身分研究」—鄭奭鍾 10 J.레이첼즈 「도덕철학」—嚴廷植 金徹 「러시아—소비에트法」—하용출 11 金洪喆 「韓國新宗教思想의 研究」—尹以欽 임현영 「변혁운동과 문학」—李東夏 12 최인훈 「길에 관한 명상」—河在鳳 全商國 「지빠귀 둥지 속의 뱀구기」—박덕규
출판時評	13	해외여행책,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金允基
독서斷想	14	자유로운 책읽기에 대하여/金炳翼
출판화제	16	침묵과 신비의 작가 르 클레지오
	18	주부 대상의 실용서 늘고 있다
화제의 책	16	로댕의 연인 '까미유 끌로델' 전기
	17	중·소 韓人의 삶 담은 포토에세이 실무경험 반영한 유선방송 입문서
해외화제	19	일본 「東洋文庫」 500종 돌파 어린이 속이는 '잡지광고' 범람
지금 독서중	20	李浩哲의 「板門店」 외—우진금속 대표 朴忠勳씨 李良校의 「由熙」—다방 주인 金禎淑씨 21 러셀 W.갬로웨이 「법은 누구 편인가」—변호사 李鎔午씨 R.폴컴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회사원 이경진씨 22 러시아 단편소설선 「초원의 집」—회사원 權虎振씨 J.과레스끼 「돈까밀로와 뽀뽀네」—교사 趙紀娟씨 23 威東鮮시집 「植民地」—가정주부 姜點南씨 李外秀의 「겨울나기」—산업안전협회 李河湍씨
컬러화보	24	민속학자 李杜鉉교수의 書架
베스트셀러社會史	26	李時炯의 「배짱으로 삼시다」 외/李 淸
작품구상	15	장편 「광야」/유재주
	27	중편 「우울한 월요일」/김주성
세계의 출판	28	대처 英수상의 정치적 明暗 분석·外
독자서평	30	김영환/장미란/조원숙/김상형/장세진
	32	신간안내
	40	200자 안내/화제의 책
	42	어린이책 들춰보기
	43	理工도서 코너
	44	신간목록
	47	정기간행물 출판기사 색인
	48	데스크 칼럼/독서퀴즈/정기구독안내
표지의 말	3	산골짜기 숲속의 '스승의 날'